



청소년 약물 남용실태 및 예방대책

정 하 성
(鄭夏聖)

평택대학교
지역사회개발학과
교수



I. 서 론

II. 대전광역시 청소년 약물남용 조사 분석

III.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대책

IV. 결 론

I. 서 론

본드·부탄가스 등 환각물질사범이 대검찰청 발표에 의하면 매년 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약물 흡입 후 비행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대책수립이 절실하다.

최근에 와서 청소년들이 각종 스트레스의 증가

와 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만연 그리고 또래집단의 유혹에 의해 약물을 남용하는 사례가 늘어나 중요한 사회적 관심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현재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지적되는 청소년 문제 중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실제적인 연구에 의한 과학적이고도 합리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기에 약물의 구입과정과 남용동기, 청소년 세대의 의식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여 실제적인 대안 연구로 나타나야 한다. 다시 말해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일은 실제적인 현실에 바탕을 두며 예방과 치료 대책을 모색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하겠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을 약물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연구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약물남용 연구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청소년 지도에 적절한 방안을 찾아

낸다.

둘째, 대전광역시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원인과 접촉경로를 규명하여 단절방안을 찾아낸다.

셋째, 청소년 약물남용 진단과 예방대책을 강구한다.

넷째, 연구결과의 활용방안을 제시해 준다.

다섯째,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대한 기여방안을 마련한다.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와 근로 및 비행청소년 중에서 임의추출법을 적용하여 선정된 15개 초·중·고등학교와 2곳의 근로청소년 및 3곳의 수용시설에 있는 비행청소년 2,000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질문지는 기존의 연구들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각 문항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토론과 조언을 얻어 만들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약물남용은 ① 술(월 음주 횟수), ② 담배(월 흡연 횟수), ③ 본드·부탄가스(월 흡입 횟수), ④ 수면제·진통제·진해제 등의 안정제(월 복용 횟수), ⑤ 타이핑·에스나인 등의 각성제(월 사용 횟수), ⑥ 대마초(월 사용 횟수), ⑦ 필로폰·코카인(월 사용 횟수), ⑧ 아편·몰핀·헤로인 등의 마약류(월 사용 횟수)로 나누었다. 그리고 독립변수는 ① 개인 특성 변수(성별과 소속별), ② 비행친구 정도, ③ 음란물 정도, ④ 부모와의 대화 정도, ⑤ 공부 및 학업성적 등으로 나누었다.

본 조사에 앞서 초·중·고등학생과 근로 및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예비조사(Pre-test)를 실시하였으며,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질문지를 수정·보완한 다음 본 조사에 임하였다.

본 조사의 자료수집은 표집된 각 초·중·고등학교의 직원과 근로 및 비행청소년 수용시설의 관계자를 통하여 각 청소년들에게 질문지를 배부하고 다시 회수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질문지는 1988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2,000부를 배부하고, 회수된 질문지 가운데 무응답 및 자료로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질문지를 10.1%(189명)를 제거한 총 1,811부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개인용 컴퓨터 통계패키지인 SPSSWIN 7.5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과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빈도분석과 백분율을 적용하였고, 개인 특성변수인 성별과 소속별에 따라 청소년 약물남용의 평균차이를 검정하기 위해서 T-Test분석과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II. 대전광역시 청소년 약물남용 조사 분석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총 조사대상자는 1,811명이며, 조사대상자의 각 특성별로 내용을 분석해 보면 53%(959명)가 남자 청소년이며, 47%(852명)는 여자 청소년이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21.4%(388명)가 12~13세이고, 26.8%(486명)가 14~16세이며, 46.9%(850명)

가 17~19세였다. 그리고 4.8%(87명)는 20세 이상의 청소년이었다. 조사대상자 중 21.2%(384명)가 초등학교생이며, 20.3%(368명)는 중학교생이고, 20.3%(367명)는 고등학교생이었다. 그리고 16.5%(299명)는 근로청소년이고, 21.7%(393명)는 비행청소년이었다.

2. 청소년 약물남용의 실태

가. 청소년의 약물사용 경험

청소년들이 얼마나 다양한 약물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으며, 약물사용 경험 여부는 개인적 특성 변수, 즉 성별과 소속별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정하였다. 청소년들 중 술 사용자는 46.8%, 담배 사용자는 34.5%, 안정제 약물 사용자 15.8%, 본드 및 부탄가스 사용자 10.4%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물은 술과 담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마초, 필로폰, 코카인, 마약류 약물은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극소수의 청소년만이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약물사용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약물남용 방지 방법으로 '구입경로의 차단'과 '가정에서의 교육'을 제시하였다. 성별에 따른 약물남용 방지 방법으로 남자는 '가정에서의 교육'이 35.5%로, 여자는 '구입경로의 차단'이 33.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약물남용 방지 방법으로 초등학교생은 '가정에서의 교육' 47.8%를, 중학생은 '구입경로의 차단' 34.4%를, 고등학교생은 '구입경로의 차단' 32.9%를, 근로청소년은 '구입경로의 차단' 32.3%를, 비행청소년

은 '구입경로의 차단' 34.5%를 가장 높게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나. 성별과 청소년 약물남용

성별에 따라 술 남용에 대한 평균 차이를 검정해 본 결과 남자 청소년의 평균이 5.86으로서 여자 청소년의 평균 1.12보다 높게 나왔다. 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성별에 따라 술 남용은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성별에 따라 담배 남용에 대한 평균 차이를 검정해 본 결과 남자 청소년의 평균이 20.62로서 여자 청소년의 평균 1.55보다 매우 높게 나왔다. 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으로서 '성별에 따라 담배 남용은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성별에 따라 본드 및 부탄가스 남용에 대한 평균 차이를 검정해 본 결과 남자 청소년의 평균이 1.90으로서 여자 청소년의 평균 0.16보다 높게 나왔다. 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성별에 따라 본드 및 부탄가스 남용은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한다. 성별에 따라 수면제, 진통제, 진해제 등의 안정제 남용의 평균차이를 검정해 본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 타이핑, 에스나인 등의 각성제 남용의 평균차이를 검정해 본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 대마초 남용의 평균차이를 검정해 본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 필로폰, 코카인 남용의 평균차이를 검정해 본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 아편, 몰핀, 헤로인 등의 마약류 남용의 평균차이를 검정해 본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 소속별 청소년 약물남용

소속별에 따라 술 남용에 대한 평균 차이를 검정해 본 결과 비행청소년의 평균이 7.99, 근로청소년의 평균은 2.54, 고등학생의 평균은 1.50으로 나타났다. 비행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들 보다 더 술을 남용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어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기 위해 LSD 사후검정을 해본 결과 비행청소년은 나머지 다른 소속의 청소년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소속별에 따라 담배 남용에 대한 평균 차이를 검정해 본 결과 비행청소년의 평균이 27.2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근로청소년의 평균 6.41, 고등학생의 평균 5.19 순으로 나타났다. 비행청소년이 일반 청소년들 보다 더 담배를 남용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어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기 위해 LSD 사후검정을 해본 결과 비행청소년은 나머지 다른 소속의 청소년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소속별에 따라 본드, 부탄가스 남용에 대한 평균차이를 검정해 본 결과 비행청소년의 평균이 2.90, 고등학생의 평균은 0.15로 나타났다. 비행청

소년이 일반 청소년들 보다 더 술을 남용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어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기 위해 LSD 사후검정을 해본 결과 비행청소년은 나머지 다른 소속의 청소년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소속별에 따라 수면제, 진통제, 진해제 등의 안정제 남용에 대한 평균 차이를 검정해 본 결과 비행청소년의 평균이 1.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중학생의 평균이 0.48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어느 집단이 상호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기 위해 LSD 사후검정을 해본 결과 비행청소년은 고등학생 집단과 근로 청소년 집단이 상호 유의미한 큰 차이를 보였다. 소속별에 따라 타이밍, 에스나인 등의 각성제 남용의 평균차이를 검정해 본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소속별에 따라 대마초 남용의 평균차이를 검정해 본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소속별에 따라 필로폰, 코카인 남용의 평균차이를 검정해 본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소속별에 따라 아편, 몰핀, 헤로인 등의 마약류 남용의 평균차이를 검정해 본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청소년 약물남용과 행동양태

가. 청소년 약물남용과 비행관계

비행친구에 따라 술 남용에 대한 평균 차이를

검정해 본 결과 비행친구가 적은 집단의 평균이 2.48로서 비행친구가 많은 집단의 평균 8.07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다. 비행친구가 많을수록 청소년의 술 남용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어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기 위해 LSD 사후검정을 해본 결과 비행친구가 많은 집단은 나머지 두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비행친구에 따라 담배 남용에 대한 평균 차이를 검정해 본 결과 비행친구가 많을수록 청소년의 담배 남용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비행친구가 적은 집단의 평균이 7.76, 보통인 집단은 14.93, 많은 집단의 평균은 26.98로 나타났다. 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어느 집단이 상호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기 위해 LSD 사후검정을 해본 결과 비행친구가 많은 집단은 나머지 두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비행친구에 따라 본드, 부탄가스 남용에 대한 평균 차이를 검정해본 결과 비행친구가 많을수록 청소년의 본드, 부탄가스 남용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비행친구가 적은 집단의 평균이 0.62, 보통인 집단은 1.46, 많은 집단의 평균은 2.45로 나타났다. 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어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기 위해 LSD 사후검정을 해본 결과 비행친구가 많은 집단은 나머지 두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비행친구에 따라 수면제, 진통제, 진해제 등의 안정제 남용의 평균차이를 검정해 본 결과 유의수

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비행친구에 따라 타이밍, 에스나인 등의 각성제 남용의 평균차이를 검정해 본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비행친구에 따라 대마초 남용의 평균차이를 검정해 본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비행친구에 따라 필로폰, 코카인 남용의 평균차이를 검정해 본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비행친구에 따라 아편, 몰핀, 헤로인 등의 마약류 남용의 평균차이를 검정해본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나. 청소년 약물남용과 음란물 접촉관계

음란물 접촉에 따라 술 남용에 대한 평균 차이를 검정해 본 결과 음란물 접촉이 많을수록 청소년들의 술 남용은 매우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음란물 접촉이 적은 집단의 평균이 3.27, 보통인 집단은 7.21, 많은 집단의 평균은 12.58로 나타났다. 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어느 집단이 상호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기 위해 LSD 사후검정을 해본 결과 음란물 접촉이 많은 집단은 나머지 두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음란물 접촉에 따라 담배 남용에 대한 평균 차이를 검정해 본 결과 음란물 접촉이 많을수록 청소년들의 담배 남용은 매우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음란물 접촉이 적은 집단의 평균이 11.83, 보통인 집단은 24.73, 많은 집단의 평균은 30.32로 나타났다. 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어느 집단이 상호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기 위해 LSD 사후검정을 해본 결과 음란물 접촉이 적은 집단은 나머지 두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음란물 접촉에 따라 본드, 부탄가스 남용에 대한 평균차이를 검정해본 결과 대체적으로 음란물 접촉이 많을수록 청소년들의 본드, 부탄가스 남용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음란물 접촉이 적은 집단의 평균이 0.78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보통인 집단은 4.63, 많은 집단의 평균은 3.94로 나타났다. 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어느 집단이 상호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기 위해 LSD 사후검정을 해본 결과 음란물 접촉이 적은 집단은 나머지 두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음란물 접촉에 따라 수면제, 진통제, 진해제 등의 안정제 남용에 대한 평균 차이를 검정해 본 결과 음란물 접촉이 많을수록 청소년들의 안정제 남용은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음란물 접촉이 적은 집단의 평균이 0.48, 보통인 집단은 1.41, 많은 집단의 평균은 2.47로 나타났다. 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어느 집단이 상호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기 위해 LSD 사후검정을 해본 결과 음란물 접촉이 적은 집단은 나머지 두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음란물 접촉에 따라 타이핑, 에스나인 등의 각성제 남용의 평균차이를 검정해 본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음란물 접촉에 따라 대마초 남용의 평균차이를 검정해 본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음란물 접촉에 따라 필로폰, 코카인 남용의 평균차이를 검정해 본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음란물 접촉에 따라 아편, 몰핀, 헤로인 등의 마약류 남용의 평균차이를 검정해 본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 청소년 약물남용과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의 대화에 따라 술 남용에 대한 평균 차이를 검정해 본 결과 대체적으로 부모와의 대화가 많을수록 청소년들의 술 남용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부모와의 대화가 적은 집단은 평균이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통인 집단은 5.51, 많은 집단의 평균은 2.7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어느 집단이 상호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기 위해 LSD 사후검정을 해본 결과 부모와의 대화가 많은 집단은 나머지 두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와의 대화에 따라 담배 남용에 대한 평균 차이를 검정해 본 결과 부모와의 대화가 많을수록 청소년들의 담배 남용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부모와의 대화가 적은 집단의 평균이 14.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통인 집단은 12.75, 많은 집단의 평균은 10.5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어느 집단이 상호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기 위해 LSD 사후검정을 해본 결과 부모와의 대화가 많은 집단은 적은 집단과 유의미한 큰 차이를 보였다. 부모와의 대화에 따라 본드, 부탄가스

남용의 평균차이를 검정해 본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와의 대화에 따라 수면제, 진통제, 진해제 등의 안정제 남용의 평균차이를 검정해 본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와의 대화에 따라 타이핑, 에스나인 등의 각성제 남용의 평균차이를 검정해 본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와의 대화에 따라 대마초 남용의 평균차이를 검정해 본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와의 대화에 따라 필로폰, 코카인 남용의 평균차이를 검정해 본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와의 대화에 따라 아편, 몰핀, 헤로인 등의 마약류 남용의 평균차이를 검정해 본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라. 청소년 약물남용과 학습관계

학업성적에 따라 술 남용에 대한 평균 차이를 검정해 본 결과 대체적으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술 남용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학업성적이 낮은(하위권) 집단의 평균이 5.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통(중위권)인 집단은 3.74, 높은(상위권) 집단의 평균은 3.0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어느 집단이 상호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기 위해 LSD 사후검정을 해본 결과 학업성적이 낮은 하위권 집단은 나머지 두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업성적에 따라 담배 남용에 대한 평균

차이를 검정해 본 결과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담배 남용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학업성적이 낮은(하위권) 집단의 평균이 18.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통(중위권)인 집단은 11.55, 높은(상위권) 집단의 평균은 9.4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어느 집단이 상호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살펴보기 위해 LSD 사후검정을 해본 결과 학업성적이 낮은 하위권 집단은 나머지 두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업성적에 따라 본드, 부탄가스 남용의 평균차이를 검정해 본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업성적에 따라 수면제, 진통제, 진해제 등의 안정제 남용의 평균차이를 검정해 본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업성적에 따라 타이핑, 에스나인 등의 각성제 남용의 평균차이를 검정해 본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업성적에 따라 대마초 남용의 평균차이를 검정해 본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업성적에 따라 필로폰, 코카인 남용의 평균차이를 검정해 본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학업성적에 따라 아편, 몰핀, 헤로인 등의 마약류 남용의 평균차이를 검정해 본 결과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III.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대책

1. 제도적 측면

가. 법적 측면

1) 약물에 관한 특별법 제정

약물관련 법규가 국민의 건강과 국민생활의 퇴폐방지를 목적으로 한다면 현재 법규로서는 청소년 약물남용에 관한 특별법 규정이 없어 약물에 대한 예방적 효과가 낮거나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이를 감안해 법적으로 청소년 약물남용에 관한 강력하고 신속,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더 이상 약물 남용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약물에 대한 법적 대처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2) 법적 신고의 의무화

우리나라 약물법규로는 마약법(1957년 4월 3일), 대마법(1976년 4월 7일),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1979년 12월 28일),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미성년자 보호법 등이 있지만 이들은 약물남용 및 제조, 유통, 판매와 통제 및 처벌 규정만 있을 뿐 약물남용 청소년이 발견되었을 때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어 신고 의무화에 따른 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신고했을 때 신고자에 대한 법적 신분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처벌위주에서 치료중심의 관련법 제정

현행법상 약물남용자가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고자 병원을 찾아가는 경우 의사가 고발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감안한다면 처벌위주에서 치료중심의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약물남용자가 자발

적으로 치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치료자의 완전 비밀보장과 정부차원의 치료비 일체 부담이 이루어져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치료 위주의 법개정이 요구된다.

나. 행정적 측면

1) 약물 대책기구의 구성과 관장 부서의 일원화

현재 청소년 문제를 다루고 있는 부서별로 살펴보면, 교육부의 청소년 약물교육 및 교재개발, 보건복지부의 약물남용에 대한 교육계몽 및 홍보, 통상산업부의 부탄가스, 환경부의 본드, 국세청의 술, 검찰 및 경찰청의 마약법, 대마 관리법, 향정신성 의약품관리법,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미성년자 보호법, 담배인삼공사의 담배가 직접 관련이 있다. 이처럼 여러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약물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추진하며 평가 및 분석하는 주무부서의 설치가 요청되고 국무총리실 및 지방자치단체에도 단체장 직속으로 약물남용 대책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려된다.

2) 약물제조 및 판매통제

청소년의 약물남용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약물제조와 판매를 법적으로 통제하여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것에서처럼 청소년들이 주로 약물을 구입하는 장소나 시설인 술집, 구멍가게, 문방구, 노래방, 디스코장 등에서 약물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가 필요하며, 또한 청소년들이 주로 약물을 사용하는 유해 환경업소, 술집, 다방, 디스

코장, 야산, 공원, 비디오방 등에 대한 청소년들의 출입을 강력히 통제하고 약물을 판매할 시는 약물에 대한 내용과 인적사항을 기록하여 학교나 가정으로 통보할 수 있는 행정적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

3) 약물남용 신고센터 및 위기전화의 설치

청소년 관련 부서 및 지방행정 기관에 약물남용 신고센터를 지정하여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약물남용 청소년이 발견되면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위기전화 서비스와 치료 서비스 지정기관이 요청된다.

2. 사회적 역할

약물남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약물남용에 관한 지식과 정보 그리고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정부차원이나 민간차원의 연구기관의 설립이 바람직하고 현재 청소년에게 약물이 남용되고 있는 것은 불법적이기보다 합법적으로 남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안정제 약물의 경우 약국이나 병원에서 주로 구입하고 있다. 그러나 약국이나 병원, 제약회사, 상점 등에서는 약물을 비의학적으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무작정 청소년들에게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청소년 약물남용의 확대는 순식간에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는 기성세대들의 사회적 양심의 문제로 남게 된다. 어른들이 솔선수범하여 청소년들의 모범이 되겠다는 사회구성원들의 올바른 사회적 양심이 요구된다.

3. 교육적 측면

가. 가정 및 부모의 역할

청소년은 모든 면에서 감수성이 예민하고 신체적으로 급격한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부모와 청소년의 대화가 적을수록 약물남용 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가정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요구되며 또한 청소년들의 특성과 그들의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나. 학교의 역할

청소년의 약물남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초·중·고 교과과정에서 단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약물복용이 확인될 경우 특별관리와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교육당국의 노력이 요청된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약물(술, 담배, 본드, 부탄가스, 안정제)은 주로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밝혀졌고, 학력(연령)이 높아질수록 약물의 정도와 종류가 한층 다양해짐을 알 수 있었다.

IV.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결과들을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제안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대전광역시 청소년의 약물사용 경험순위는 술, 담배, 안정제, 약물, 본드 및 부탄가스 순으

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물은 술, 담배이며 대마초, 필로폰, 코카인, 마약류 약물은 거의 사용하지 않거나 극소수의 청소년만이 사용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약물사용에 대한 교육은 초등학교 시절에서부터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초·중·고등학생의 연령에 따라 차별을 둔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약물(술, 담배, 본드, 부탄가스, 수면제, 진통제, 신경안정제)은 초등학교부터 시작되어 중학교 시절엔 청소년들 대부분이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술, 담배, 약물이나 본드, 부탄가스 등의 약물 구입이 술집, 구멍가게, 문방구, 노래방, 디스코장, 친구나 선배 등으로 나타났고 진정제 약품의 경우는 주로 병원이나 약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청소년 유해시설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과 법적 제재가 요구된다. 또한 약물의 유통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이 요청된다.

넷째, 청소년들은 술, 담배, 약물을 주로 자기 집이나 친구 집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아울러 술집이나 노래방, 디스코장 그리고 놀이터나 야산, 공원 등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본드나 부탄가스 그리고 안정제 약물의 사용장소나 시설로는 주로 자기 집이나 친구 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에서의 교육, 특히 부모의 역할과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암시하고 있다.

다섯째, 비행경험이 높을수록 약물을 많이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청소년 보다 비행청소년(소년원생)의 약물남용이 심각한 지경인데, 비행청소년(소년원생)의 약물남용 치료·재활 프로그램 마련이 시급하다.

여섯째, 청소년 약물남용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모와의 대화가 많은 청소년일수록 약물남용 정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가정에서 부모들의 관심과 애정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요청된다.

일곱째, 청소년들의 건전한 교우관계 및 이성관계 형성이 요구된다. 즉, 많은 비행청소년들과 사귀는 학생일수록 약물남용 정도가 높게 나타남을 본 연구에서 알 수 있었다.

여덟째, 주입식 및 입시위주의 학교제도나 학력제일주의 사회풍토가 개선되어야 한다. 공부와 학교성적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청소년들이 약물남용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약물사용 청소년들의 68.5%가 약물남용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 청소년들에게 약물에 대한 전문적이고 정확한 교육이 실시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약물에 대한 정확한 교육을 위한 교재와 전문 인력 개발이 요청된다. **열린충남**

참고문헌

- 김경빈, “입원된 정신활성물질 남용자의 사회정신 의학적 특징”,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추계 학술대회 자료집, 1990.
- 김준호, “청소년 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공부에 대한 압력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990.
- 김한곤, “청소년약물남용에 관한 연구 : 대구시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새마을지역개발연구, 제15집, 1992.
- 박명윤,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대책”, 한국청소년연구 제1권 제3호, 1990.
- 삼성복지재단, 약물남용 청소년교육 프로그램, 서울 : 삼성복지재단, 1996.
- 손호중, “청소년 비행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고찰”,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식품의약품안전청, 청소년약물 오남용 예방 중교생활지도교사 지도교재, 1998.
- 심정택, “도시청소년의 지위집단별 비행요인분석”, 한국청소년연구원, 한국청소년연구, 제6호, 1991.
- 오동열 역, 아편양제제 약물사용, 해리슨내과학 13판, 서울 : 정담, 1997.
- _____, 마약, 학교청소년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교재, 서울 : 보건복지부, 1996.
- _____,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 중 · 고교생활지도교사 교육교재, 서울 : 식품의약품 안전청, 1998.
- 우룡, 정하성, “평택지역 청소년의 약물남용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평택대학교 논문집, 제9집 제2호, 1997.
- 이계록, “청소년 약물남용의 실태 및 대책”, 1994.
- 이윤로, 청소년 약물남용의 원인과 치료, 서울 : 문음사, 1997.
- 이진삼, “청소년 비행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 이충경, 박상규, 오동열, 김경빈, 김병욱 : 마약중독 관리 및 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역학조사, 서울 : 보건복지부, 1998.
- 장상희, “청소년 약물남용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연구”, 한국사회학, 제26집, 1992.
- 주왕기, 청소년 약물남용, 서울 : 세계사, 1989.
- 체육청소년부,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대책, 1992.
- _____, 청소년 약물남용 예방지침서, 1991.
- _____, 청소년백서, 1997.
- _____, 약물오남용 예방교육 지도지침서, 1990.
- _____, 미국의 약물예방교육, 1994.
- _____,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대책연구, 1993.
- 평택시 청소년상담실, 청소년 문제와 관련한 음주, 흡연에 관한 세미나, 평택 : 평택시 청소년상담실, 1997.
- Cloward, Richard A. and Lloyd E. Ohlin, *Delinquency and Opportunity*, N. Y. : Free Press, 1963.
- Cohen, Albert K., *Delinquent Boys : The Culture of the gang*, N.Y. : Free Press, 1955.

- C. Fletcher and R. Doll, "A Survey of doctor's attitudes to smoking", *British Journal of Prevention and social Medicine*.
- Dong Yul Oh : *Illegal drug addiction in Korea*, Medical progress, 1997.
- E. H. Sutherland and Donald R. Cressey, *Principles of Criminology*, 7th(ed.), Philadelphia : J. Lippincott, 1966.
- Lindesmith, Alfred R. and John Gagnon, "Anomie and Drug Addiction", *Anomic and Deviant Behavior*, N. Y. : Free Press, 1964.
- Hirschi, Travis, *Causes of Delinquency*, Los Angeles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9.
- Merton, Robert K., *Social Theory and Social Structure*, N. Y. : Free Press, 1957.
- Statk, Rodney. 1979. "Whose Status Counts : Comment on Tittle, Villemez, and Smit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4).
- Tittle, Charles R., Wayne J. Villemez, and Douglas A. Smith, "The Myth of Social Class and Criminality : An Empirical Assessment of the Empirical Evidence, American Sociological Assessment of the Empirical Assessment of the Empirical Evidenc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3(5), 1978.